

#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1년 2월 21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  
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12-13,16)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되게 하여주옵소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78장** ..... **다같이**

1.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2.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3. 엄숙한 침묵 속에서 못 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재 성부 하나님  
아멘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로마서 8:19-23 ..... 인도자**

-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설 교 .....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478장 ..... 다같이**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3.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좌석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중앙교회 예배당 330명) 현장  
예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로마서 8:19-23)

지금 교회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신실한 성도들은 금식이나 절식을 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교단적으로 생명의 피를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금식운동을 40일 동안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소금식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려는 기도와 실천운동입니다. 인류가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피력한 바와 같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종노릇에서 해방해 주기를 갈구한 것처럼 이제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19절).

창조 이야기는 창조-생태주의적 신앙고백에 있어서 근원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친족 관계를 이룹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별도로 존재하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와 공생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리고 자연만물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 절대적인 입장에 섰던 인간은 상대적 위치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므로, 동물을 최대한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고 보살펴야 하며, 모든 방식으로 동물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의 지킴이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은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의 통치권은 관리자, 보호자, 후견인, 보존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모든 형태를 가진 생명과 모든 자연 자원에까지 확장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단절과 자연재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 전통에는 ‘성례전적 우주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 즉 세계를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하면 우리는 적색 성령 즉 피로써 죄를 용서하는 성령으로만 알고 있지만, 성령님

은 녹색 성령 즉 자연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모든 생명의 숨이요, 치유의 바람이며, 생명의 물이며, 깨끗하게 하는 불로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 우주 중심으로 회심해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탈하고, 역시 자연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태학적인 죄는 땅을 독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신학과 녹색 은총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청지기직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의 아픔들은 우리를 창조 목적으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탄소금식을 통하여 우리 안의 욕망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경건한 40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